

# 상처와 치유의 글쓰기, 김형경의 『세월』에 나타난 젠더 정치성

송 주 현\*

## 요약

본 연구는 김형경의 장편소설 『세월』을 통해, 한 개인 혹은 작가가 당시 자신이 당한 성폭력의 경험을 폭로하고 서사화하는 것의 의미와 한계점을 살핀다. 이 소설은 구체적인 성폭력의 경험을 대중들에게 폭로하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 또한 이것이 90년대 여성작가들의 부상이라는 문학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갈등과 상처의 원인을 탐색하며 여성적인 것으로서의 화해와 치유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문화운동과 사회변화의 기폭제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허무주의적인 운명론과 성급한 화해와 자기모순을 통해 보이는 남성 사회로의 편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작가 개인의 한계라기보다는 이 소설이 놓인 90년대 한국 문단이 가졌던 젠더 담론의 한계이기도 하다.

주제어: 김형경, 세월, 성폭력, 젠더 정치성, 미투 운동, 여성 자전소설

## 목차

1. 90년대 문학의 지형도와 『세월』
2. 『세월』에 나타난 젠더 정치성
3. 한계점
4. 결론을 대신하여

1) 한신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 1. 90년대 문학의 지형도와 『세월』<sup>1)</sup>

본 연구는 90년대 『세월』이라는 자전적 소설로 문단 내외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김형경 소설의 의미와 90년대 문학적 환경의 변화 양상을 살핀다. 이 소설은 작가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이자 성폭력에 대한 픽션적 논픽션이다. 자신의 폭력에 대한 서사화는 개인 치유의 맥락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담론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여성성의 사회적 인식을 탐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김형경은 1983년 『문예중앙』에 시가 당선, 1985년 『문학사상』에 중편 소설 「죽음잔치」가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지만, 소설가로서의 본격적인 문단활동은 전업작가로서 자리를 잡은 90년대 이후부터다.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가 국민일보 1억 원 고료 수상작으로 당선되면서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인데, 작가는 78학번으로서 격동의 80년대를 운동권 세대의 감각과 감수성으로써 체화하고 있으면서도 90년대의 새로운 문화와 문학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문학세계를 구축해 나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90년대는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시대와 문화의 다양한 흐름들이 새롭게 형성된 시기다. 문단 내에서는 리얼리즘의 전통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과 내면, 여성과 대중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모아지는

---

1) 김형경은 1960년 강릉 출생으로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발표한 주요 소설들은 다음과 같다. 『단종은 키가 작다』(고려원, 1991),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민예당, 1994), 『세월1,2,3』(문학동네, 1995), 『푸른 나무의 기억』(문학과 지성사, 1995), 『피리새는 피리가 없다』(한겨레 신문사, 1998), 『민동산에서의 하룻밤』(공저, 이수, 1999),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1,2』(문이당, 2002), 『성에』(푸른 숲, 2004), 『외출』(문학과 지성사, 2005), 『담배 피우는 여자』(문학과 지성사, 2005), 『꽃피는 고래』(창비, 2008), 『울지 말아요 기타』(사람 풍경, 2013). 본고에서 다루는 『세월』 텍스트는 1995년 발행된 문학동네 판이 기본이지만 텍스트 접근의 편의상 2010년 재간행된 푸른숲 판으로 한다(가장최근의 것은 2012년 사람풍경 판이다). 참고로 1995년 문학동네 판과 비교하였을 때 작가의 말이 추가된 것 외에, 원본의 개작이나 수정은 없다.

시기였다. 발표지면의 확장과 문단 내외의 다양한 잡지 등의 발간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90년대는 여성작가들이 문단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베스트셀러 시장의 주인공을 차지하였으며, 일군의 여성 비평가가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한 90년대는 페미니즘이 운동의 언어로 주목받은 시기이기도하다. 전 사회적으로 근친성폭력피해 사건(‘보은진관’ 사건)(1992), 신교수 사건(1993년)<sup>2)</sup> 등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쏟아졌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가에서는 반성폭력 학칙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김형경의 『세월』은 이러한 두 가지 기류가 합쳐지면서 탄생한 것이다.

특히 『세월』은 이러한 90년대적 상황을 매우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한 여성의 구체적인 성폭력의 경험을 대중들에게 폭로하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한 개인의 경험,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로 존재해 왔던 여성이 경험한 폭력에 대해 논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상처를 가한 사회구조와 권력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텍스트는 많은 대중들에게 호기심과 흥미, 가십 거리로, 혹은 김형경 불운한 개인사의 기록 정도로 한정되기 쉬웠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받는다 해도 당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여성작가들의 자전적 소설, 자전적 글쓰기의 맥락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정도였다.<sup>3)</sup> 비교적 최근의

2) 당시에는 당시 ‘서울대 우조교 사건’으로 지칭되었던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한국 최초로 법적으로 제기된 성희롱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직장내 성희롱이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마련하였고,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성과를 낳았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을 왜곡시킨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하라」, 『서울여성민우회』, 2002, 10, 24.)

3) 김연숙·이정희, 「여성의 자기발견의 서사, ‘자전적 글쓰기」, 『여성과 사회』 8월호, 1997, 192-210면.

김윤경, 「1980-1990년대 여성 작가들의 여성적 글쓰기 연구」, 세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김양전, 「주변부에서 세상 읽기의 산문성과 비극성」, 『실천문학』 41호, 1996, 217-232면.

연구로 김형경 소설에 내재된 억압과 콤플렉스를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 분석학적 이론으로 분석한 정도만이 있을 뿐이다.<sup>4)</sup> 20여 년 가까운 간극이 있기는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벌어진 미투 운동의 성과와 견주어 보았을 때, 여성 개인이 당한 젠더폭력의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통찰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담론화되지 못하고 역동적인 논의의 장으로 수렴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세월』을 살펴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1990년대 형성된 한국사회 내의 반성폭력 움직임이다. 1993년 신교수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이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사회적 문제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대학가에서는 학내의 성폭력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가 김형경의 대대적인 ‘고백’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미투 운동은 일상화된 인터넷의 보급이라는 환경적 변화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여성에 관한 자기 경험의 서사화와 성폭력에 대한 폭로는 그 행위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대중에게 공유되고 담론화되는가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미투운동과 견주어 김형경의 소설이 생산되고 사회적으로 독해되는 과정을 통해 폭력에 대한 여성의 경험이 어떻게 구체화되며 그것이 어떻게 서사화되었는가를 살핀다. 이로써 90년대 『세월』을 통해 재구성된 여성 주체가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한계를 더불어 살필 수 있을 것이다.

---

홍혜원·노정은, 「한중 자전적 여성소설 비교 연구」, 『현대문학이론 연구』 42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299-324면.

최인자, 「김형경 『세월』에 나타난 트라우마 치유의 자전적 서사 쓰기」, 『국어교육』 139호, 한국어교육학회, 2012, 285-302면.

김향심,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본 ‘여성 경험의 의미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4) 김경순, 『김형경 소설의 콤플렉스 양상 연구』, 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 2. 『세월』에 나타난 젠더 정치성

### 1) 폭로와 성찰

장편 3권으로 구성된 『세월』은 ‘그 아이’-‘그 여학생’-‘그 여자’로 서술되는 작가의 삶에 대한 자전적 기록이다. 전통적으로 자서전은 주로 남성들의 기록물로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이 자신들의 생애를 기록하기 위해 쓰여졌다.<sup>5)</sup>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공적인 삶이나 자아완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도록 강요당해 왔기에 자서전적 ‘소설’을 주로 써 왔다. 이에 대해 서지문은 19세기 영국 여성 작가들의 자전적 소설을 분석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sup>6)</sup> 첫째는 대중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둘째는 허구라는 극적 장치를 통해 현실세계에서 드러내지 못한 성취와 보상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김미현은 이해받고 싶은 욕망과, 비난받을지 모른다는 공포라는 상충된 심리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sup>7)</sup>

김형경의 『세월』은 어떠한가? 작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대중에 대한 시선보다는 그녀 자신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치유, 그리고 자기 위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니 그 이전에 그 사건과 상황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였다고 보인다. 대중을 의식하며 이해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의 심리를 갖기엔 아직 그 사건과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도 객관적 거리도 유지하지 못한 까닭이다. ‘허구’라는 형식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작

5) 서지문, 「자전적 서술 기록으로서의 자기 은닉」, 『한국 여성학』 7, 한국여성학회, 1992(조주현,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본 여성 경험의 의미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 논문, 1999에서 재인용).

6) 서지문, 「19세기 여성 작가의 자전적 소설」, 『또 하나의 문화』 9, 또 하나의 문화, 1992(위의 글에서 재인용).

7) 김미현, 『한국 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2; 「주변에서 쓰기, 중심에서 읽기」, 『소설과 사상』 여름, 1996(위의 글에서 재인용).

품 속 인물과 상황들이 실제의 상황과 현실과 거의 흡사하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작품 속 이야기는 실제의 그녀,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이들의 현실 그대로를 완벽히 재현한 듯 보인다.

작품 속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부모의 불화로 어린 시절부터 홀로 남겨져 깊은 상실감으로 얼룩진 유년시절의 ‘그 아이’의 이야기는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한다. 작은 개천과 시내를 지나 자라나는 이제 그 여학생으로, 성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자의’ 이야기로 확장된다. 작은 물방울이었던 그 아이가 마침내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공통적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폭력’이다. 그리고 그 폭력의 결정체가 대학 1학년 ‘그 남자’로부터 당한 성폭력이며 이후 7년의 시간 동안 그 남자로부터 받은 고통과 억압의 시간이다.

그래도 그 여자는 최선을 다해 피한다. 다시 손이 머리 위로 묶이고 몸이 짓눌리고 입으로 입이 틀어막힌다. 고개를 저으며, 몸을 뒤틀며, 다리로 허공을 차며…….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른다. 도와달라고, 누구든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사방은 고요하기만 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호흡이 멎을 듯하다. 몸부림치며, 몸부림치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 여자의 포박된 손과 머리가 벽에 닿는다. 벽, 더 이상 몸을 뒤틀어도 피할 수 없는 벽. 두 벽의 모서리였던 것 같다. 어디로도 몸을 뒤틀 수 없는 상황. 그 여자가 절망하기도 전에, 먼저 바지가 찢겨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그 여자가 입고 있던 바지는 파란색 골텐 바지다. (중략) 울부짖는 듯한, 포효하는 듯한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여자의 얼굴 근처로 주먹이 날아온다. 주먹은 그 여자의 얼굴 바로 옆 벽을 친다. 한 번, 두 번……. 그 여자는 얼굴을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공포에 질려 숨이 멎는다. (중략) 그 여자는 얼굴 왼쪽에서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통증을 느낀다. 아니, 온몸에서. 그 남자의 손등에서는 피가 흐른다. (2권, 90-107면)

전투, 모욕, 치욕이었던 그날의 기억은 중학교 2학년 때 하숙집 옆방

공군소위에게 아무 이유없이 당한 폭행의 기억을 소환한다. 부모의 불화로 유년시절로부터 버림받은 채 살아가던, 유난히 자의식과 감수성이 예민한 그녀를 죽음의 무자비한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이다.

고개를 드는 순간, 다시 얼굴로 손바닥이 날아온다. 공군소위다. 무슨 일인가 판단하기도 전에 다시 얼굴로 손바닥이 날아온다. 경악 다음에 느낀 건 공포다. (중략) 공군 소위는 달아나는 여학생을 끌어당긴다. 여학생은 빈 자루처럼 바닥에 넘어진다. 주먹은 계속해서 머리며 얼굴이며 어깨로 쏟아진다. 그는 한 번씩 주먹질을 할 때마다 한마디씩 욕설을 한다.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여학생에게 하는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욕설이다. 인류 보편적인 욕설, 모든 불특정 다수가 그 대상이 되기도 하는 욕이다. 그의 숨결에서는 지독한 술냄새가 뿜어져 나온다. (1권, 188-189면)

집중해 볼 것은 이것이다. 서술하는 것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평면적으로 진술하는 듯 하나, 서사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핵심동력은 열 아홉 살, 대학 1학년 때 ‘그 남자’로부터 당한 성폭력과 이후 7년간, 혹은 그 이후 그 남자에게 억압당한 세월에 대한 분노라는 점이다. 다시 말한다면 그녀가 당한 성폭력의 고통과 경험이 그녀의 성장과정에 있어왔던 다른 형태의 폭력과 상처들을 소환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김형경의 『세월』을 단순히 자서전, 성장의 기록으로 한정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텍스트를 구성해가는 핵심적 동력이자 계기를 지워버리는 셈이 되고 만다. 더군다나 이 작품을 ‘성장’의 서사, 일종의 통과제의로서 읽어나가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니세이션의 구조상 성장을 위한 과정적 고통은 꼭 치러야 할 통과제의로서 당연한 절차이자 과정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녀의 문제, 권력의 문제를 떠나 작가가 작품을 통해 말한 바대로 ‘인간 존엄’의 문제다. 힘없는

한 여성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성폭력의 경험이, 한 사회에 통합되고 과정적으로 승인되거나 정당화되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다음은 1권 작품 첫 장의 일부다.

19세부터 20대 중반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그 여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이야기를 넣는다. 그때 차라리 정신과 치료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혼돈의 기억이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더라면 그 일을 극복하는 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 일, 누군가 의논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곁에 있었더라면 인생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회한으로 가슴 치는 일이 있다. (중략) 대학 1학년 때, 시골에서 갓 올라온 열아홉 살짜리 여자가 서울에 대해 낯설고 공포스러워하고 있을 때, 대학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사람을 외롭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알게 되었던 어떤 사람.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휩쓸려 들어갔던 어떤 사건, 그 사건이 삶의 물질을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놓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금니를 물어야 했던 일. 그 일을 따로 말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 일도 이 이야기 속에 섞는다. (1권, 19-20면)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일을 따로 말할 자신이 없는 그녀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 속에 그 성폭력의 경험을 섞어 말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당한 성폭력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이후 일방적인 억압과 조종의 시간, 그토록 속수무책이고 무력했던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찰하는 행위가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세월』을 이끌어가는 서사의 핵은 힘없는 한 여성이 당한 성폭력의 경험과 그것이 준 고통에 대한 폭로이자 그 상처에 대한 응시다. 그 고통과 억울함은 “너무 힘들어,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이따금 한 번씩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려(1권 22면).”라는 진술처럼 현재까지도 그 여자를 고통과 혼돈 속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더욱 파괴적이다.



작품 속 그 여자의 성폭력에 대한 폭로와 이에 대한 서사화는 정치성의 문제다.<sup>8)</sup>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치란 평등 과정이며 해방 행위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치안의 질서를 가로질러 그 위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분배의 질서를 해체하는 작업이다.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적인 것’이란 바로 이 치안과 정치가 맞부딪치는 지점이다. 치안과 정치가 부딪쳐 형성되는 선이 곧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 테두리, 경계인 셈이다.<sup>9)</sup> 이렇게 본다면 김형경의 『세월』을 통한 글쓰기는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기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고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성폭력이 남-녀 관계, 사회적 위계관계(연극부의 선-후배) 관계, 또한 물리력의 차이에 의한, 그야말로 사회적·역사적으로 구성된 권력관계의 집적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폭로가,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적 언어로 표출할 수 있는 작가의 언어로써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주목해 볼 만한 점이다. 90년대에 들어 부상한 여성작가들의 위상과 지위가 이러한 작업이 가능케 한 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대상이 기성 문인으로서 공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8) 네그리, 랑시에르 등에 따르면 정치성, 혹은 ‘정치적인 것’은 국가 권력 등 주권적 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부조리·횡포로 고통받고 소외받는 대중 또는 다중의 현대 주체들이 행복과 복지를 향한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신명아, 「네그리의 이론에서 정치적 힘-구성적 힘과 다중을 중심으로」, 『한국비평이론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0.

9) “랑시에르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드러내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이 ‘치안과 정치’의 구분이다. 여기서 치안과 정치는 직접적으로 대립한다. 랑시에르는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이르는 것을 두고 치안(police)이라고 지칭한다. 치안이란 간단히 말하면, 국가를 경영하는 기술이다. 치안은 통치 과정이다. 인간들을 공동체(국가)로 결집시켜 동의를 조직하고, 그들 각자에게 자리와 기능을 분배해 위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치안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정치가 전형적인 치안에 해당한다. 랑시에르는 이 치안에 정치를 맞세운다. 정치란 평등 과정이며 해방 행위다. 그것은 치안의 질서를 가로질러 그 위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분배의 질서를 해체하는 작업이다.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적인 것’이란 바로 이 치안과 정치가 맞부딪치는 지점을 가리킨다. 치안과 정치가 부딪쳐 형성되는 선이 곧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 테두리, 경계인 셈이다.” 고명섭, 「정치가 종말을 고했다고요?」, 한겨레, 2008.10.17.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상의 의미를 지닌다. 의미있는 것은 이 과정에는 작가 개인의 삶에 대한 통찰뿐 아니라, 오랜 기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젠더 불평등의 역사와 시간들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과정이 내재 돼 있다는 것이다.

## 2) 여성적인 것으로서의 화해와 치유

허구의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 사건의 폭로로서 기획된 듯한 이 소설은 폭로, 그리고 분노로서 이야기를 끝맺지 않는다. 작가는 그 고통의 과정을 피로하게 응시하면서도 그 권력관계의 희생양이었던 자신과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이해와 화해를 시도한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의 세계다. 그 여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성 앞에 너무 오랜 시간, 자신을 죽음과도 같은 상태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또한 그녀를 견디고 구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 온전한 사랑의 세계는 온전한 충일감과 충만함 그 자체다. 이 세계에서는 성차의 구별과 차이조차 무화된다. 암흑과도 같았던 그 여자에게 유일한 색채와 빛으로 존재했던 사랑의 대상이 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중학생 시절, 비밀스런 연애관계를 만들었던 동성 친구 보경, 그리고 젊은 시절 한없는 그리움과 안타까운 순정의 대상이었던 잿빛 바바리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보다 더 오래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경이는 여학생의 손에 조금 더 힘을 가한다. 여학생은 아주 따뜻한 안정감을 느낀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싶어했던 것, 아버지가 손을 잡아 주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 바로 그것을 보경이가 대신 해주고 있다. 열세 살에도 사랑을 알까, 진정한 사랑을. 여성들 사이에도 사랑이 있을까. 진정한 사랑이. 어른이 된 그 여자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게 첫사랑이었다고. 그 사랑에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이 다 있었다고. (1권, 115면)

넷가, 자잘한 자갈들이 깔려 있는 넷가에 앉아 오래도록 강물을 바라 본다. 보경아……. 한참 만에, 여학생은 마음 속으로 보경이의 이름을 불러 본다. 그래, 이게 네 이름을 부르는 마지막일 거야. 주머니에 든 돌을 꺼내 제가 앉은 바로 옆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것을 또 오래 바라 본다. 영원히 널 잊지 않을게. 이 돌을 지금 이렇게 강가에 두고 가지만, 그래서 이 돌도 여러 돌멩이들 중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늘 기억할게. 내게 있었던 단 하나의 특별한 돌, 하얗고 반들반들한 그 돌멩이 하나를. (1권, 203면)

남학생의 잿빛 바바리 자락이 바람에 잠깐 흔들린다. 얼핏 그 옷자락에서 출렁이는 바다를 본 듯하다. 흐린 날, 혹은 비가 올 때, 하늘과 바다가 하나의 공간으로 녹아내리는 잿빛의 출렁임. 그 여자는 문득 바다가 보고 싶어진다. 고향에 있는 바다, 자신의 슬픔과 혼돈을 받아 들여주던 바다, 언제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바다. (1권, 338면)

흥미로운 점은 그 여자에게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보경과 잿빛 바바리는 모두 ‘강’, 혹은 ‘바다’의 이미지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여자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궁극적으로 닿은 곳은 바다였다.

바다는, 그 모든 것을 품에 간직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한 바다는, 이제 단 하나의 방식으로 제 마음을 보여준다. (중략) 그 여자는 바다의 부력을 믿는다. 아무리 바닥이 없는 허방에 빠지더라도, 아무리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떠오를 수 있는 힘, 그건 바다가 가르쳐준 부력이다. 제가 빠진 심연과 절망의 무게만큼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 절망이 크면 큰 만큼, 어깨에 얹히는 운명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운 만큼 바다는 더 많은 부력을 행사한다. 그것이 바다의 마음이다. (3권, 349-350)

이는 생명과 영원한 모성이 살아있는 세계 코라(chora)다. 폭력으로 얼룩진 여성의 육체는 ‘텅 빈 용기’와도 같은 것이었다.<sup>10)</sup> 그것은 남성중심의 세계에서 훼손된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는 코라공간으로서 이를 이해할 때 위계적 젠더 이분법에 따라 만들어진 권력과 구조적 힘을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이 공간에서 우리는 힘의 권력관계에 의한 위계적 힘들의 배타성이 아니라 이질적인 힘과 세계의 공존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코라에 내재한 무규정적인 힘은 형상의 타자, 차이와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

### 3) 문화운동의 확산과 대안

『세월』에서 주목해 볼 점은 낡은 젠더 의식에 대한 오랜 역사적 관습과 뿌리깊은 편견들을 다시 보고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 낡은 관습의 피해자였기에 이러한 선언과 제안은 매우 구체적이다. 이 소설을 단순히 개인적 폭로와 억울함에 대한 토로, 혹은 (발표당시처럼) 어떤 남녀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가십거리로만 이해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일종의 사회운동, 문화변혁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과 사람들의 통념이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반성을 가한다. 실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현실과 상담기구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

10) 이현재, 「여성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텅 빈 공간에서 가임의(pregnant) 코라 공간으로」, 『젠더와 문화』 5-1,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2012, 51면.

11) 위의 글, 60면.

산신령이란 아마, 누대를 두고 누적되어온 우리의 관습이거나 사회적 통념일 것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동물이어서, 그저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편견, 여자는 처녀막이 목숨만큼 중요하다는 통념, 남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여자를 제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보쌈 같은 관습. 그 모든 것이 산신령일 것이다.

그 여자는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을, 제가 들은 최초의 성폭행에 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그건 아마 우리 문학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성폭행 문학이기도 할 것이나. 옛날에 옛날에,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 그렇지만 늘 현재인 이야기.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 그러나 냉혹하고 잔인한 이야기 (2권, 95면)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들었던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남성들 간의 공모, 그리고 탐욕스런 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가한 성폭력과 억압의 이야기였음을 인정한다. 또한 인형의 집을 나간 (입센의 「인형의 집」) 노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인간 존엄’을 생각하고, 길고 긴 동서양 문학사에서 왜 여성 성장 소설은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작가로서 그녀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들이 하나의 문학적, 문화적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시도하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제 그 여자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 여성을 화자로 내세워 여성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대지의 의미로서, 모성의 의미로서 여성들이 어떻게 이 땅처럼 새로운 생명을 키우며 살아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한다. (1권, 200면)

그녀는 자신이 당한 성폭력의 경험을 서사화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낡은 교육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비판하고 나아가 제대로 된 상담소, 혹은 신고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우리사회의 실상을 뼈아프게 바라본다. 또한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수동적 피해자였던 여성들이 세상과 어

떻게 화해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나가고 있다.

### 3. 한계점

이 소설의 서술은 3인칭, 그리고 현재 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을 객관화하면서도 현재화함으로써, 과거의 그 사건이 어느 한 개인에게 그리고 그 시간에 고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서술되고 독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여성주체의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 90년대 소설이 의미 있는 것은 주체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작품에서 사용된 서술방식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함께 새로운 여성 주체의 탄생과 그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다. 『세월』에 대한 기존의 연구 또한 이러한 새로운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부여한다.<sup>12)</sup> 그러나 그 여성주체의 실체란 어떠한 것인가?

작은 물방울이 작은 시내와 개천을 지나, 험한 강과 계곡을 거쳐 이룬 곳은 바다다. 그리고 작품 마지막에 그 여자가 바다 앞에서 보여준 평화로운 모습은, 이제 모든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모습인 듯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약한 지반 위에 있는 것인가는 도리어 『세월』 집필 이후에도 작가가 보였던 끊임없는 고통의 시간과 이를 다스리기 위해 보였던 문학 내외의 행보와 행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녀가 『세월』을 통해 보여준 화해와 평화의 모습은 잠시 잠깐의 착각이 아니었을까? 이 여성주체의 허약함은 사실 텍스트로부터 확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균열을 일으킨 자리에 새로 세워진 여성 주체의 실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점들은 텍스트에 어떻

---

12) 조주현, 앞의 글.

게 드러나 있는가?

## 1) 운명론과 개인론

『세월』의 화자는 그 여자에게 새로운 운명의 고삐가 이제 그녀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후 다시, 사건과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운명론을 덧붙인다.

버스 안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그 여자 속에서는 내내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어머니의 피다. 언제나 윤리나 도덕을 강조하는 어머니의 피, 그럼에도, 그저 얼굴만 한번 보고 싶다고, 텅 빈 거리에 서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버지의 피다. 낭만적인 아버지의 피. (중략) 분명 잿빛 바바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를 보자마자 마음 속에서 싸우던 두 피 중 아버지의 피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중략)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아버지의 피가 몸 안에서 심장 벽을 세계 친다. (3권, 52-54면)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잿빛 바바리에 대해서만큼은 소심하고 예민한 그녀조차도 심리적으로는 적극적 능동태였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 그녀가 잿빛 바바리에 대해 자신의 선택을 해 나갈 때 그것은 그녀의 적극적인 의지가 아닌, 운명처럼 아로새겨진 ‘피’가 시킨 일로 제한해 버리는 것이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운명에게, 자신을 시소 저편에 올려놓고 흔드는 심술신에게, 그리고 부처님께, 모든 힘 가진 것들에게 그 여자는 매달린다. 살려달라고.

“다른 건 아무 것도 바라지 않아요. 지금의 이 혼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마음 속에 앙금이 고이지 않게 해 주세요. 모든 일이 그저 물처럼

럼 흘러 지나가게 해 주세요.” (3권, 192면)

자신의 고통조차도 운명에 의지하여 빌며, 사주나 토정비결을 그 여자의 삶의 풍향계이자 나침반(2권, 171면)을 삼는 그녀는, 그 남자에게 휘둘리면서도 결국 동거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 여자의 “핏줄 속에, 유전자 속에 녹아 있는 의식이 내린 결론”(2권, 118면)이라 칭한다. 문제는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고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현재에도 매우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20대 이후에도 자신이 성에 대해 무지했던 것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2권, 86면). “일러주지 않았으며”(2권, 90면), 어디까지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기 때문이다. 선택의 책임을 개인의 주체적 결단이 아닌 ‘운명’, 혹은 외부로만 돌리는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진술된 자아의 각성, 주체의 정립이라는 것도 그 실상을 보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운명론은 심지어, 자신을 성폭행한 ‘그 남자’에 대한 면죄부까지 씌워주고 만다.

그 일은 또한 그 남자의 잘못이 아니다(...) 굳이 잘못의 소재를 따져야 한다면, 그의 핏줄 속에, 유전자 속에 녹아 있는 바로 그 나무꾼과 산신령일 것이다. (2권, 96면)

그 남자로 인해 그토록 고통받았고 고통 받으면서, 또한 그 이후로도 고통 받을 것이었으면서 “그 남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진술은 결국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만다. 자신이 당한 성폭력이 중학교 2학년때의 무분별한 폭력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하다는 것,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 무엇보다 “존엄성의 철저한 상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운명론에 기대어, 심지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는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피’와 ‘운명’에 돌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현실적 책임과 방법은 사라지고 만다. 그렇기에 그녀가 찾은 해결의 방식은 허무하게도 ‘자기 수양’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작가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와 구조가 만들어 낸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왔으면서도,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유독 자신의 괴로움을 한 개인의 문제로 허무하게 되돌린다. 개인 수양, 마음 다스림으로써 그간 애써 제기한 문제들을 성급히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걸 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여자는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것이 마음 탓이다. 아무 것도 아닌 말을 그토록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무심한 말에 그토록 상처를 입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고, 피해의식이라고, 신경증이라고 느끼는 것도 마음이다. 마음만 없다면, 마음만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곁을 스쳐가는 바람과 다름 바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그 여자는, 마음 중에서도, 자신을 그토록 괴롭혀 온 것이 바로 예민한 감수성과 서늘 푸른 자의식임을 알아차린다. (3권, 195면)

젠더 문제를 다룬 여성의 작품이 의식의 각성을 반드시 선언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다. 다만 고통의 과정을 통해 획득한 새로운 의식의 자리에 끊임없는 자기검열과 어쩔 수 없는 운명론을 씌우고 그 책임을 너무 예민한 자신의 문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문제로 성급하게 덮어버린 것은 문제의 책임과 원인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다. 어찌면 이것은 개인의 내적 성찰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는 ‘너만 참으면 돼’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생산한 억압의 주입과 재생산이 아닌가? 그렇기에 그녀는 일시적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으나 불쑥 찾아오는 이윽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13)</sup> 이토록 무력하고

도 수동적인 모습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성폭력 사건 이후 7년 여의 시간 동안 자신을 스스로 방기한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자신이 받아야 할 월세방의 보증금을(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를) 셈에 둔하다는 이유로, 혹은 세상이 원래 그러하다며 지레 포기하고 요구조차 하지 않은 모습 역시, 세상과 운명에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수동적으로 자신을 놓아 버린 모습과도 같다. 덧붙여, 그 여자는 그 남자의 ‘바람’으로 이별하게 되었다는 점도 돌이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별 또한 그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남자가 보인 도발에 의한 것이 된다. 그렇게 남자를 떠나오지만 그녀가 한동안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관계에 대한 억울함 자체가 아니라 버려졌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자 분노다. 이는 그녀의 유년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 울던 소녀의 모습 그대로다. 그 남자의 도발이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도 언제까지라도 자신을 족쇄의 굴레에 복종시키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 수동성은 그녀의 성장과정에서, 어린아이로서 감당할 수 없던 삶의 무게를 견디며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체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진술하는, 모든 산을 넘어 다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는 현재적 관점에서도 이 체념적 시선이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그간의 균열 이후 만들어진 여성 주체의 실상에 대해 우리는 회의하게 되는 것이다. 도리어 ‘신경증’을 앓고 있던 격동의 20대가, 그 일을

13) 김형경은 『세월』 이후에도 오랜 기간 알 수 없는 신경증과 고통에 시달린다.

“삼십 대를 끝내는 지점에서 호되게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타나지 않았고, 신체적인 무력감은 정신적 공황 상태 비슷한 것으로 이어졌다. 그 일을 계기로 길고 지난한 정신분석 과정을 거쳤는데, 그 작업은 내가 삶을 어떤 밑실에 가두고 있었는지를 알게 했고, 의식을 폐쇄된 공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성애 장면을 묘사할 때 내면에서 느껴지는 자기 검열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문제뿐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여성들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있었고, 생물학적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안고 나올 수밖에 없는 진화 심리학적 문제도 있었다.” 김형경, 『사람 풍경』, (주)위즈덤하우스, 2006, 278-280면.

진술하고 있는 현재의 지금보다 나은 것일 수 있다.

## 2) 과장된 이해와 거짓 화해

말을 하면서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가. 이제 다 지난 일이다. 힘들게 넘어왔지만 그래도 그 산을 다 넘었고, 지금은 멀리서 담담한 눈으로 그 산을 바라본다. 어금니를 물면서 상실감을 참고, 입술을 깨물며 굴욕을 받아들이고, 모든 울분과 회한이 곧잘 제 가슴을 겨누는 칼날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미 넘은 산이다. (1권 22면)

화자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주술을 걸 듯 이야기 한다. 다 넘은 산이며, 이제 자신은 괜찮다고.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작품 곳곳에, 그리고 작품 말미에 그려진 그녀의 평화는 도리어 위장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담담하게 그려진 다양한 사건상황에 대한 진술 속에서 그 여자의 불안과 강박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불안은 어떻게 표출되는가? 이것은 피해자인 그녀가 가해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이해의 시선을 강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한 폭력과 폭행은 그것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그 행위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도 없다. 더군다나 그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용서의 제스처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이다. 그럼에도 작품의 화자는 자신에게 가한 폭력적 존재들에 대한 ‘불필요한’ 이해의 시선을 끊임없이 투영한다. 어린 아이를 돌보지 못한 학대자로서의 부모를 이해하고 묻지마 폭행범 공군소위도 이해하고, 심지어 자신을 성폭행하고 여자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그 남자’도 이해한다. 자신을 감금하고 기괴한 촛불 결혼식을 올리자는 그 남자를 두고 “그에게도 사랑을 잘못 인식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거나(2권, 120면), 동거 중 자신을 친구 혜정에게 보내고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

려운 그 남자의 행위를 두고 “질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3권, 31면)고 말한다. 자신에게 부정적 감정과 말을 쏟아내는 옆방 선미 엄마를 또한 굳이 이해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인 폭력을 가했던 중2때의 공군소위의 폭력마저도, 그가 요청하지도 않은 서사를 만들어가며 어쩔 수 없는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또한 이해한다.

그 공군 소위를 이해하게 된 것은 그 일이 있는 10년쯤 후다. 그 무렵 그 여자는, 공연히 아무나 때려주고 싶고, 아무에게나 두들겨 맞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 땅 밑을 더듬고 다니는 용암처럼, 가슴 속을 이리 저리 흐르다가 어느 순간엔가는 폭발하고야 마는, 억압된 울분을 알게 된다. (중략) 그는 진급의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연인으로부터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버림받았거나, 상관으로부터 몹시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1권, 192-193면)

폭력은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이지 이해의 대상도 아량의 대상도 아니다. 더군다나 요청하지도 않은 이해를, 굳이 가상의 서사를 만들어가면서 이해하려는 것은 약자에 대한 잔인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누구나 살다보면 세상에 대한 적의와 분노를 느끼는 때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이것을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그것도 자신보다 한없이 약한 대상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으로 표출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래서도 안 된다. 치유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상처받은 자의 상처를 충분히 어루만지고 이해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상대의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를 받아내야 하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이해와 용서는 그 다음의 일이다.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가해자를 향한 어설픈 이해의 시선을 통해 얻어낸, 억지스런 내적화해의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극도로 불안한 주체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이 불안의 연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90년대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여성작가의 등장과 함께 생각해 볼 점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중 하나가 사랑과 불륜에 대한 상상력이라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성적 해방과 성적 자율성 등이 사랑을 다룬 서사의 증가와 연결되는 문제였다. 가령 1997년 한국 최초로 발간된 페미니스트 잡지 『이프』 등에서 ‘여성을 위한 포르노그래피’를 이야기할 만큼, 적극적인 성적 실천을 사회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성적 해방’은 한편으로는 자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이기도 했다. 이러한 모순은 여성해방론자의 자기모순으로, 혹은 입장철회 등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세월』의 주인공이 보이는 자기 설득 혹은 해원으로서의 서사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한 작가 혹은 주체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성의 자유와 해방의 의미가 충분히 사유되지 못한 1990년대의 시대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 3) 가부장 남성 사회로의 편입

이별 후 그녀는 세상과 불화했던 자신을 용서하고 보듬어 가는 듯 보인다. 적극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해 돈도 벌고 연애도 한다. 하지 않던 화장을 하고 서슬퍼런 자의식과 감수성도 내려놓는다. 또한 지극 세속적인 것이라 할 것들을 자발적으로 승인한다.

그 여자는 드디어,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나고, 책들이 심어준 환상에서 벗어나고, 내부에 있는 모든 고집과 독선을 버린다. 감수성을 무디게 하고 자의식의 껍질을 깨려 노력한다. 그러면서 비로소 세상 속으로 들어서는 길을 찾아 나선다. 그제서야 왜 통속적이라는 말을 그리도 부정적으로 인식했는지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속이다. 이 세상의 본질과 통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관통하는, 바로 그 통속의 길이다. 통속

적이 되리라, 스물일곱에야, 겨우 그런 다짐을 한다. (3권, 231면)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여성주체로서의 각성과 의식을 가진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 남성사회로의 편입이라는 점에 있다. 가령, 그 여자는 직장 내 남자 선배 동료들과 함께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룸살롱, 미아리 텍사스까지 가게 된다. 사창가 술판에서 벌이는 여성들의 묘기(아마도 성기를 이용한 맥주병 뚜껑 따기, 담배 피우기, 붓글씨 쓰기, 오이 자르기, 달걀 낱기)를 보며 충격을 받을 뿐 “빠구리 하러 가자”며 파트너를 하나씩 끼고 사라지는 남성들을 말없이 바라본다. 그들이 일을 치르고 오는 동안 그녀는 다만 그들을 그 사창가 공간에서 머물러 기다릴 뿐이다. 이후에야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독서를 통해 획득하는데 새롭게 획득된 성의 개념 역시 남성에게 의해 기술되고 이해되는 방식 그대로라는 것은 문제다. “성이란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일 뿐이다, 그 욕구를 배설해야 한다, 사람이 한번에 방출하는 정액의 양도 비슷하다”라는 등의 진술을 보자. 이러한 성은 어디까지나 남성의 시선에서 기술되고 이해된 것이다. 이때 여성은 철저히 타자화되고 대상화되어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해되는 것은 남성들의 성매매, 그것의 정당성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왜곡된 순결이데올로기에 종속되었던 그녀가 해방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기존 남성중심 사회에 편입되는 방식이라는 점은 문제다.

결정적인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가졌던 ‘그 남자’와의 만남이다. 한 잡지의 편집장이 된 그녀와, 가정을 이루고 문학가로서 사회적 성공과 안정을 이룬 남자와의 만남. 그 남자는 연극부 선배로서 19세의 그녀를 일방적으로 폭력하고 감금했으며 조종하고 억압했다. 또한 다른 여자를 끌어어들여 그나마의 관계마저 깨뜨렸다. 그녀는 단 한 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 남자가 어떤 의도와 맥락이었던 그녀는 그 남자와의 사건과 관계로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버텼다. 시간

이 흘렀다고 해서 그 남자의 행동과 의도를 미화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제와서 그를 서둘러 이해하고 해명한다. 정작 그 남자는 사과나 사죄의 제스처나 뉘앙스조차 없다. 그런 그에게 그녀는, 요청받지도 않은 이해의 시선을 건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를 이해하기 위해 그 남자가 가진 ‘열정과 신명’을 언급하며 그를 “순수한 데가 많다”고 한다. 그 기질상 그 남자는 남자의 방식대로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속죄도 사죄도 받은 바가 없다. 물론 그 남자의 실제 모델이었던 작가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소설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대한 자기 정당화이자 방어일 뿐이다. 어쨌든 피해자였던 그녀가,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요청하지 않은 이해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폭로의 의미를 도리어 지워버리는 성급한 부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그런 관계에서 고통스러운 것은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 7년 동안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했던 행위도 그 남자의 예술가 기질(3권, 333면)”이라는 진술은 그 남자의 일방적 폭력과 억압의 시간,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방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세월』은 한국 문단에서 이제 막 여성작가들의 목소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던 무렵, 당시로서는 대중들 앞에 쉽게 꺼낼 수 없던 성폭력과 그것이 가져다 준 억압의 굴레의 시간을 폭로한 기록이다. 비록 허구라는 형식을 거쳤지만,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들을, 소설이라는 형식이 무색할 정도로 그녀의 삶 그 자체를 고스란히 서사화하여 만인 앞에 이를 드러내는 과정은 가히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 과정에서 작가에겐 실로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한 개인의 억울함만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역사, 문화에, 그리고 교육에 관한 뼈아픈 성찰과 모색과 탐색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젠더 인식과 정치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젠더 정치성의 모색을 통해 구현된 여성주체의 실상은 실로 허약해 보인다. 애써 용기를 내어 시도한 혁명적 과정이 너무 성급한 봉합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의 미숙함이라 단언할 수 없고 또한 그렇다 해서 폄하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작가의 이 모든 작업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사소한 해원의 시도였던 가부장적 사회의 전복을 꿈꾸는 전위적 행동의 실천이었던 간에 아직 젠더 의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작품을 다시 눈여겨 보아야 하는 이유는, 당시 그 성폭력의 사건들을 서사화하고 폭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젠더 의식과 관련 사건들을 공론화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사건과 폭로가 왜 더 진지한 젠더 담론으로 확장되지 못했는가, 한 개인의 안타까운 사건사고, 혹은 흥미나 가십거리로만 남게 되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도 당시로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젠더 의식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고 당시로서는 이것이 구체적인 담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되기에는 우리사회의 경직된 분위기가 매우 컸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상황들과 인식들이 작가 내면에도 나름의 검열의 기제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본고에서 지적하는 『세월』이 제기한 젠더 정치성의 한계점들은 한국 페미니즘 운동과 역사가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문제의식들이 공유되기 시작하던 고작 10년이던 당시로부터 25여 년이 지난 현재, 2020년대 현재의 사후적 해석이자 비판일 수 있다. 그렇기에 본고에서 제기하는 『세월』의 한계점은 작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인식의 한계일 수도 있다. 또한 작가 개인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시간을 충분히 응시하고 성찰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까닭일 수도 있다. 작가는 78학번으로, 60년대적인 넓은 세대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교육을 받았고, 사회변혁을 꿈꾸려는 격동의 80년대를 대학에서 보냈으며, 자유와 해방의 90년대를 맞아 부상한 여성 작가다. 각 시대의 상징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지만 서른 중반쯤의 나이에 그 모든 세대의 결결과 충돌지점을 어떤 통합된 가치와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기엔 작가에게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형경, 『세월』 1~3, 푸른숲, 2010.  
김형경, 『사람 풍경』, ㈜위즈덤하우스, 2006.

2. 논문 단행본

- 김경순, 『김형경 소설의 콤플렉스 양상 연구』, 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김미현, 「주변에서 쓰기, 중심에서 읽기」, 『소설과 사상』 여름, 1996.  
\_\_\_\_\_, 『한국 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2.  
김연숙·이정희, 「여성의 자기발견의 서사, '자전적 글쓰기」, 『여성과 사회』 8월호, 1997, 192-210면.  
김윤경, 「1980~1990년대 여성 작가들의 여성적 글쓰기 연구」, 세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김양선, 「주변부에서 세상 읽기의 산문성과 비극성」, 『실천문학』 41호, 1996, 217-232면.  
김향심,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본 '여성 경험의 의미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서지문, 「자전적 서술 기록으로서의 자기 은닉」, 『한국 여성학』 7, 한국여성학회, 1992, 105-136면.  
\_\_\_\_\_, 「19세기 여성 작가의 자전적 소설」, 『또 하나의 문화』 9, 또 하나의 문화, 1992.  
신명아, 「네그리의 이론에서 정치적 힘-구성적 힘과 다중을 중심으로」, 『한국비평이론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0.  
이현재, 「여성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텅 빈 공간에서 가임의(pregnant) 코라 공간으로」, 『젠더와 문화』 5-1,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2012, 41-69면.  
조주현,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본 여성 경험의 의미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 논문, 1999.  
최인자, 「김형경 『세월』에 나타난 트라우마 치유의 자전적 서사 쓰기」, 『국어교육』 139호, 한국어교육학회, 2012, 285-302면.  
홍혜원·노정은, 「한중 자전적 여성소설 비교 연구」, 『현대문학이론 연구』 42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299-324면.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 3. 기타자료

고명섭, 「정치가 종말을 고했다고요?」, 한겨레, 2008.10.17.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316652.html> (검색일자 2021.11.22.)

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서울  
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을 왜곡시킨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하라」, 『서울여성민  
우회』, 2002.10.24.

<https://www.womenlink.or.kr/archives/297> (검색일자 2021.11.22.)

<Abstract>

Writing for Wounds and Healing,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Gender Politics in Kim  
Hyung-kyung's 『Time』

Song, Ju-hyun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narrating and exposing the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experienced by an individual or writer at the time through Kim Hyeong-kyung's novel 『Time』. This novel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text that exposes specific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to the public, and that it was made amid changes in the literary environment of the rise of female writers in the 1990s.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s the causes of conflict and wounds and seeks reconciliation and healing as a feminine thing, and further explores the potential as a catalyst for cultural movement and social change. Nevertheless, this novel has its own limitations, namely the nihilistic fatalism and the incorporation into the male society through hasty reconciliation and self-contradiction. However, this is not a limitation of the individual author, but a limitation of the gender discourse of Korean literature in the 1990s in which this novel is set.

Key words: Kim Hyung-kyung, Time, Sexual Violence, Gender Politics,  
#MeToo, Women's Autobiographical Novel

투 고 일 : 2022년 2월 16일

심 사 일 : 2022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2년 3월 10일

수정마감일 : 2022년 3월 20일